

사사기 14. "에브라임의 교만과 소사사 3명" [12 장 1 절-15 절]

1. 들어가기

본 장은 11 장의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소개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사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 시비를 걸고, 또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면서,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족속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 불행한 사건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 후 성경은 사사 입다가 죽은 뒤, 입산, 엘론, 압돈, 3 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었음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.

2.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(1-7 절)

1) 에브라임 지파의 뿌리 박힌 교만함과 습관적인 질투의 습성은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. (1 절)

■ 에브라임의 불평: "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?" So "불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"

■ 주목 - 이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못된 습성

☆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도 똑같이 질투하며 불평!

삿 8:1, "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"

곧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지파요 명문지파로서 늘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만 된다는 교만함이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. 그러므로 다른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고,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질투하며,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늘 방해하려는 못된 습성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.

■ 사사 기드온과 사사 입다의 차이

☆ 사사 기드온 -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며 설득함!

- 당시 에브라임은 전쟁 막바지에 기드온을 조금은 거들어 주었음!

☆ 사사 입다 - 말에 능한 사사요, 큰 용사! But! 그들을 강하게 책망! (2-3 절)

- 먼저 도움을 청했으나, 에브라임은 그 요청을 무시했기 때문!

■ 성도는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안에 한 형제와 자매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.

☆ 에브라임은 비록 부르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마땅히 전쟁에 참여해 주었어야 했습니다.

☆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들이 남인가? - 길르앗은 그들과 친족관계였다!

민 26:28-29, "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.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,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"

2)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함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.

삿 12:4b, "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"

곧 "너희가 원래는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후손들이지만, 지금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고 혼자 따로 떨어져나간 탕자 같은 족속들"이라는 말로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감수할 만한 매우 모욕적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■ 불의 한 말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늘 기억하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.

야 3:6, "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"

3) 이에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결정하였습니다.

삿 12:4a, "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"

➤ **생각하기 1. 사사 입다의 결정은 잘한 것일까? 만일 기드온이라면? 또 나라면?**

4) 전쟁의 결과는 사사 입다가 이끈 길르앗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.

■ **주목 - 입다의 뒷끝?**

- ✧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도망하는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터에서 처참히 죽였음. (5-6 절)
- ✧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해 에브라임의 방언을 이용!  
- '쉽볼렛' 이란 발음 - 에브라임 사람은 '십볼렛' 이라 발음 - (뜻= "하수 혹은 큰 물")
- ✧ 개인적 견해: 곧이 도망가는 동족들까지 요단 강에서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징계치고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!

5) 이 전쟁으로 인해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.

- 참고 : 민 1 장의 첫 인구 조사 때 에브라임 지파의 수는 4만 5백명이었고, 민 26 장의 2차 조사 때는 그보다 줄어서 3만 2천 명이였다. 곧 당시 싸울 수 있는 대다수의 에브라임 남자들은 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보아야 할 것!

6) 그 후 사사 입다는 이전 사사들과는 달리 6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.

3. 사사 입다가 죽은 뒤, 입산, 엘론, 압돈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.

1) 사사 입산는 7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렸습니다. (7-9 절)

■ 베들레헴 출신: 많은 학자들은 유대 베들레헴이 아닌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라 생각.

☆ 대부분 유대 지파의 베들레헴을 말할 때 성경은 '유대 베들레헴 혹은 베들레헴 에브라다' 라고 표현!

☆ 또한 유대 지파의 사사는 사사의 룰 모델이라 불리는 웃니엘 뿐이었고, 대부분의 사사기의 배경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었던기 때문!

■ 입산은 아들 딸 각각 30 명씩을 두었고, 모두 다른 민족들과 결혼시켰습니다.

☆ 자식이 많은 것은 부유의 상징 / 부인도 여럿이었다는 것.

☆ 다른 민족에게 결혼을 시킨 것 - 정략결혼!

곧 당시 다른 민족들이 평화를 위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볼 수 있음!

2) 사사 엘론은 스불론 지파 출신으로 10년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. (11-12 절)

3) 사사 압돈은 므낫세 지파의 비라돈 출신 힐렐의 아들로 8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.

■ 아들 40 명, 손자 30 명이 있었고, 그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음!

- 상당한 부와 지위를 자식들을 비롯해 손자들까지 가족 모두가 다 갖고 있었다는 것

4. 곧 성경은 이들 소사사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그들이 누린 부와 권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.

■ 곧 이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,

☆ 사사 입산 -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식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림

☆ 사사 엘론 - 아무런 행적도 기록되지 못하는 사사

☆ 사사 압돈 - 부와 권력만 쫓았던 사사

➤ 생각하기 2.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?